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개편

군산시, 대상 축소… 생활지원 유지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적용

코로나19 격리와 관련해 재정지원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조정된다.

지난 24일 군산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로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을 조정한다.

이는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축소해 재정지원을 효율화 하고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해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실시된다.

유급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사업주 비용부담 측면을 감안해 종사자수 30인 미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일부 축소했다.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상대적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은 지속된다.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 환자본인 부담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유행 안정화를 계기로 하반기 재유행 대비를 위해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집중, 방역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다"면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확인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서 우수지자체상 수상

군산시, 적극 유치 · 정착 유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24일부터 26일까지AT센터에서 개최된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귀농 · 귀촌분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귀농 · 귀촌분야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군산은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2022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서 그동안 귀농인 적극 유치, 안정적 정착 유도, 귀농인 농가 소득 증대 등 귀농귀촌사업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극복방법 등 상담을 통해서 예비 귀농인들의 많은 관심과 만족도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농기센터 귀농활력계와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는 3일간의 박람회 기간 동안 지역방문이 어려운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군산시 귀농정책 및 지원사업,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군산 농특산물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면서 귀농 최적지 군산만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다.

시 귀농 · 귀촌인구는 2019년 440명, 2020년 674명, 2021년 749명, 올해 1/4분기 기준 249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귀농 · 귀촌 인구 분석결과 40대 이하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세대의 귀농 · 귀촌 비율이 높아 고령화 되는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청년창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문을 연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1단계 교육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허브로 도약 준비'

익산시, 위드로컬 청년창업 1단계 교육프로그램 성황리 종료

익산시가 청년창업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문을 연 민관협력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1단계 교육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지원 정책을 본격화하며 추진된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시와 SK E&S 전북에너지서비스간 민관협력 사업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시책사업이다.

사업화 가능한 창업 아이템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예비창업자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전문 교육기관인 언더독스를 통한 단계별 교육과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창업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0개 청년팀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총 9회에 걸쳐 아이템 구체화, 고객설정,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경쟁사 분석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21일에는 학습 성과를 교류하는 발표회를 청년시청이 조성될 (구) 하노바 호텔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발표회는 창업자별로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1단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한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 발표와 전문가들의 피드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 됐다.

2단계 교육프로그램은 청년팀의 니즈를 반영해 특강, 멘토링, 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헌율 시장은 "청년창업을 선도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특화, 후속 프로그램 등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제8대 익산시의회, 4년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마무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범한 제8대 익산시의회는 오는 30일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18년 6 · 13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8대 익산시의회 전반기에는 조규대 의장, 윤영숙 부의장, 그리고 후반기에는 유재구 의장, 박철원 부의장이 선출되어 4년 간 익산시의회를 이끌었다.

제209회 임시회부터 제242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8회, 임시회 26회, 총 34회의 회기를 통해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쉴 틈 없이 펼쳐왔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1,815건의 시정요구를 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시정질문은 53건(7대 27건), 5분 자유발언은 176건(7대 114건)으로 시정의 여러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6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의원발의 조례는 208건으로 7대 76건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 또한, '국립김염병연구소 익산시 유치 건의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등 총 28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을 채택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중앙동 침수피해 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피해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마중물 스터디 지원사업 지원금 확대

군산시는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 스터디 지원사업을 7월부터 확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중물 스터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생 6학년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월 12만원의 지원금을 15만원으로 높여 늘어난 학원비에 따라 학원비 지원금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마중물 스터디 사업은 군산시와 마중물 가맹 학원이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과목 중심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교육발전진흥재단 사업비로 학원비를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군산시 학원 연합회(회장 김재훈)가 40%를 감면해 대상자는 20%만 부담하고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소외계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장선 마중물 스터디 가맹 학원의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사업이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학습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청소년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내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6.25전쟁 72주년 희생과 공헌 기려

익산시는 6 · 25전쟁 72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는 25일 오전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제72주년 6 · 25전쟁 기념식'을 가지고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의 소중함과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김수흥, 한병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및 9585부대 3대대장,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모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선정해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6.25전쟁 72주년 안보결의대회 개최

군산시는 2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 · 안보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기관 단체장 및 군인,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을 통해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의 위훈을 널리 알리고자 진행됐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대회사, 기념사, 격려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UN참전국 국기를 게양해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6.25전쟁 사진전을 통해 전쟁의 고통과 슬픔을 생생하게 전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6.25참전유공자회 소속으로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회원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온 5명의 참전용사에게 군산시장 표창이 수여되며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